

“당신은 AI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인가?”

사람의 인지신경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AGI (범용인공지능)를 정신상담 분야에 적용한 멀지 않은 미래. 몇 년 전 단편으로 세계적 영화제에 진출해 능력을 인정받은 영화와 4학년 제니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다. 제니는 AGI 정신과 의사 콜리와 상담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지정'에 관심을 둔다. 지정은 제니가 힘들어하는 심리적 장애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절하는 기법이다. 결국 지정을 선택한 제니는 어떻게 될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신경을 통제한다는 상상력을 발휘, 인간 정신과 첨단기술과의 관계에 질문을 던지는 연극이 무대에 올려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ACC 예술극장 극장 1에서 연극 '지정 Self-Designation'을 초연한다.

이 작품은 AGI가 사람의 인지신경을 조절하고, AGI 정신과 의사가 등장하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제니가 세계적인 영화제를 목표로 작업해가는 과정에서 AGI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심리를 조절하는 이야기다. 제니의 '지정' 전·후를 압축한 여정을 보여주면서 극도로 발달된 기계들과 공존하는 멀지 않은 미래에 화두를 던진다.



작가 장우재



연출 박정희



배우 이호재

연극은 목표 출신으로 차범석희곡상을 수상한 장우재(대진대 연극영화학부 교수) 작가의 작품이며, '오셀로', '아버지', '방문' 등을 연출한 극단 풍경의 대표 박정희 연출이 참여했다. 무대에는 배우 이호재·이정미·김정영·나경민 등이 오른다.

최근 장 작가와 박 연출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평소 AI나 AGI에 관심이 많지 않았다는 장 작가는 '현재'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위해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시간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통해서 '현재'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 너머의 세계관인 포스트휴먼, 뉴휴먼 등의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보고자 한다"며 "그래서 AI와 AGI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은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라고 생각해요.



지정 Self-Designation

오는 9월3~5일 ACC에서 열리는 연극 '지정' 연습 장면.

인간과 과학 관계 다룬 연극 '지정' 초연
9월 3~5일 ACC...이호재·이정미 무대에
작가 장우재 "신기술 등장, 미래에 대한 질문"
연출 박정희 "연기 통해 관객 상상력 자극"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이와 관련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기술과 어떻게 매칭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작가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감기처럼 흔해진 우울증을 겪는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을 조절해줄 장치라 생각하면 어떤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장치가 AGI 의사인 거죠. 이렇게 AGI로 인해 변모하게 될 미래를 관객들과 함께 짐작해보고, 그 짐작을 통해 현재를 다시 바라보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박 연출은 이러한 장 작가의 스토리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는 AI가 인지신경을 조절한다는 것이 지금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까운 미래 기술이 발전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출은 "이번 작품 컨셉을 '해피 디스토피아'로 정했다"며 "모두 사라지고 없어지는 디스토피아가 아닌 알고리즘의 통제 속에서 행복하게 욕망을 이루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객들이 배우들의 연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화에서는 컴퓨터그래픽을 통해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배우의 표정, 목소리 등 연극적 요소를 최대한 살려 AGI가 친밀하게 묘사될 수 있도록 했죠. 관객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하기 위해서요. 인간 내면에 잠자고 있는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풍경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장 작가는 AI와 AGI가 발전하고 있는 지금, 인

간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기계를 발전시킬 것인가 보다 우리가 왜 이러한 기술을 원하며, 또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즉 새로운 기술을 통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출은 작품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관객 스스로 질문을 가져오길 권하며 주인공의 지정 전과 후의 변화가 관망 포인트라고 말한다.

그는 "어떠한 극한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AGI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간으로 살아가길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며 "기술에 의존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작가에게는 이번 작품의 의미가 남다르다. 그는 "오랜만에 작품을 들고 광주에 왔다. 나도 그렇지만 작가라면 누구나 광주에 부채의식이 있을 것"이라며 "부채의식 속에서도 '지정'이라는 흥미로운 작품으로 광주 시민과 만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AI나 AGI를 주제로 했다고 해서 공연이 어렵진 않아요. 지정 전과 후를 꼭 보면서 주인공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4일 공연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강변에서'

아트광주21 '미술의 숲' 첫 프레페어

26일~9월1일 이화갤러리, 진원장 개인전

오는 10월 열리는 제12회 광주국제미술전람회 '아트광주21'은 본 행사 개막을 앞두고 다양한 사전 행사를 통해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지역 작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트마켓 '미술의 숲 프리뷰'는 지금까지 관선재 갤러리에서 두 차례 열렸고 또 다른 사전 행사인 '미술의 숲-프레페어'가 미술애호가를 찾아간다.

'프레페어'는 미술시장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갤러리에 초점을 맞춘 기획이다. 아트광주21에 참여하는 광주-전남 지역 갤러리를 소개하고 작품 작가와 작품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행사로 지역 미술계의 자생적인 생태계를 지원하는 의미로 기획됐다. 갤러리들과 컬렉터들과의 의미있는 만남을 주선,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아트페어의 단점을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첫번째 프레페어는 26일부터 9월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이화갤러리(대표 이정화)에서 열린다.

아트광주 21에 서양화가 진원장(조선대 명예교수) 화백을 초대한 이화갤러리는 본 행사에 앞서진 화백의 개인전을 통해 작품 세계를 미리 선보

인다. 광주시립미술관, 무작사 로터스갤러리, 독일 베를린 전시회 이어 오랜만에 작품전을 여는 진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신작 '여름날의 별밤'과 광주전에서 눈여겨 본 꽃잎의 이미지를 담은 '강변에서' 등 모두 15점을 출품했다. 차분한 색감과 동화적 이미지들이 어우러져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작품들이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인근 문을 열었던 이화갤러리는 2년여만에 예술의 거리로 장소를 옮겨 갤러리 운영을 다시 시작했다.

전시 개막일인 26일 오후 6시에는 윤익 아트광주21 총감독이 '아트테크와 미술품 수집'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또 아트광주 21 사무국은 이번 전시에서 만나는 작품 소개와 전시장 스케치, 작가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아트광주21은 오는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15개국 70개 갤러리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강좌

9월 3일~11월 12일...전동진·이옥희·송광룡 등 참여

"다산 정약용"과 "영랑 김윤식"의 무대인 강진 탐방을 모티브로 작가를 꿈꾸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인문학 강좌가 열린다.

전남대 도서관(관장 장우권)은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인문학 강의와 현장 탐방 등으로 구성된 '2021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산과 영랑의 시를 읽으며 강진을 읽고 쓰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전남대 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강사진은 전동진 박사, 이옥희 강사, 송광룡 문학대 대표, 최성숙 사진작가, 최창근 강사로 구성된 데 있으며 문학과 여행이 어우러진 지역 인문학



송광룡

체험을 답사기로 출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인문학으로 만나는 '강진'', '문화기술지 작성법', '영랑의 삶과 문학', '다산의 삶과 문학', '사진의 이론과 실제', '강진의 역사와 문화', '강진현장 탐방' 등이다. 아울러 강좌 마지막에서는 '답사기행문 피드백', '출판의 실제' 등이 이어진다.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530-353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행복이벤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축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협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1)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신로9번길2-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